

이야기 10: 야곱 2 (벤엘의 야곱)

주제말씀
[창세기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먼 곳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긴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높이 닿았어요.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벤엘이라고 하였어요.

어느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어요.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했어요.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제게 주신다면 제가 칠 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어느 새 칠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칠 년이 짧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 다시 칠 년 동안 일한다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을 따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이 지난 후,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활동 1.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에서는 왜 아굽에게 암시를 품었나요?

2) 아굽은 어디로 도망갔나요?

3) 아굽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활동 2.

아래 그림에서 5가지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이름 :